

직업능력개발

I. 직업능력개발정책

-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 3월부터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과정 96개에 대하여 학점인정제 적용(2013.02.27.)
 - 2012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한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가 학점 취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학점 인정 절차를 간소화함.
 - 이에 따라 2012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 41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한 고졸 구직자 및 재직자(570명)가 학점 인정 혜택을 받음.
 - 올해 3월부터는 2013년도 고용노동부 지원 96개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 최대 32학점(1년 과정)까지 새로이 학점 인정을 받게 되어 더욱 많은 고졸 근로자(약 3,600여 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향후 계획
 - 지난해 10월, 양 부처는 업무 협약을 통해 ‘고용부 직업훈련과정의 학점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 개별 직업훈련의 특수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학점 인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 여성가족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폴리텍대 연계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 지원(2013.2.18.)
 -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전문기술 습득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국책 특수대학인 폴리텍대학이 연계하는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함.

-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새일센터와 폴리텍대학의 연계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국폴리텍 I 대학과 강서·종로·남부 새일센터가 2월 19일에 협약을 체결함.

○ 훈련·지원 내용

- 폴리텍 I 대학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웹콘텐츠 디자인(정수 캠퍼스), 캐드&모델링(정수 캠퍼스), 한식조리(강서 캠퍼스) 3개의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운영. 각 캠퍼스의 전문 교수진이 교육훈련에 직접 참여
- 새일센터는 센터별로 각 과정을 전담하여 훈련생 모집, 수료 후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를 담당
- 훈련과정은 전액 국비로 무료이고, 3~7월 동안 운영되며, 과정별로 20명 내외 모집

□ 고용노동부,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82곳 선정(2013.2.18.)

-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주도의 맞춤형 취업 프로젝트인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기관을 발표하였음.
- 취업아카데미는 기업·사업주단체가 기업 및 학교와 연계하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올해 선정된 기관은 총 82곳으로 지난해 59곳보다 23곳이 늘었고, 지원 인원도 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8천 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음.

○ 2011~2012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추진 결과

-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의 취업률(고용보험 3개월 유지, 2012년 12월)은 63.3%로, 대학 졸업 직후의 평균 취업률인 42.7%(해당 시점)보다 높고 졸업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의 취업률(62.1%)과 비슷한 수치임.
 - 취업까지의 소요 기간도 보통은 대학 졸업 후 평균 8.2개월이나,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거치면 9.4개월 단축되어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조사
 - 또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협회의 경우 철강·조선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에 취업률이 각각 96%, 93.6%에 달하였음.
 - 한편, 이 사업의 협약대학으로 참여한 서울여자대학교는 정부 지원이 끝난 후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신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대학 교과과정이 산업 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추진 계획
- 올해부터는 학력 등 스펙과 상관없이 일반고 재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취업을 선택한 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1년간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
 -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4개의 특화모델에 '창조적 역량'을 추가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협약 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협약 기업이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임.
- 2013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선정기관 활동 계획
- 올해 선정된 기관 중 '지역특화형'인 (특)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부산시와 MOU를 체결, 부산 지역 내 선박 관리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
 - '인문사회 특화형'인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국제물류 전문가 양성 과

정'을 운영,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

- '신성장동력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Data Base 개발자 양성 과정'을 운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청년 인재를 양성
- 한편, 다수의 협약학교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189개, 60.9%) 지역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고, 협약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2,726개, 93.5%)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고용노동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4곳 선정 (2013.2.18.)**

-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는 가출, 학업 중단 등의 사유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4곳을 선정
- 선정기관은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서울 소재), 광양만권HRD센터(광양 소재),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목포 소재), 춘천YMCA(춘천 소재)임.

○ 취업사관학교 개요

- 목적: 학업 중단, 가출, 일탈행위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기계가공(50명), 용접(30명), 항만장비 정비(30명), 피부 미용(20명) 등 4개 훈련과정을 운영함.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임.
- 지원 대상 청소년들의 경우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개인적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치료사 등에게서 상시적으로 심리지도와 진로지도 등을

받게 됨.

- 취업사관학교의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생은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과 숙식을 제공 받음. 수료 후에는 운영기관의 취업 지원을 받게 됨.
- 참고로, 2012년도에는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등, 4개 기관에서 기계가공, 특수 용접 등 4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였고, 수료생 96명 중 76.0%인 73명이 취업에 성공

□ **지식경제부, 고령사회를 대비해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KS 제정 (2013.1.17.)**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고령 친화 서비스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및 교수인력 관리 절차, 교육생 불만 처리 등을 규정한 KS 표준 제정
- 제정 배경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만족도가 요양보호사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교육이 중요하나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보다 인력 배출에 치중. 또한 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인프라 기준, 교육 내용을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서비스 방법, 절차, 품질관리, 고객 의견 및 만족도 관리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중 교육 이수 후에도 서비스 수행 능력이 미흡한 이들이 많아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들을 상당 기간 재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음.
 - 교육의 수요자(요양보호사 교육생) 입장에서는 교육이 이론 중심적이며, 실무를 전혀 모르는 강사가 대부분이라는 점, 또한 양성만 할 뿐 취업 및 진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요양보호사 교육 관리체계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표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단위: 개소)	990	1,050	1,430	850	700 (5월 말)
요양보호사 배출인원 (단위: 천 명)	230	470	296	92	51 (5월 말)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단위: 천 명)	265	391	466	324	337 (10월 말)

자료: 한국요양보호협회,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정 내용

-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 규정된 시설, 인력 등에 대한 강제기준 외에도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서비스 방법, 절차, 업무 매뉴얼,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구체적으로는,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체계, 교수 인력, 시설, 교구 확보, 환경 및 위생 관리, 불만 및 피해 보상 처리, 고객만족도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 기대 효과

- 교육기관 운영자 스스로가 KS 표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행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요양보호사 교육 희망자에게는 난립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우수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제공

○ 기술표준원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KS 제정 외에도 앞으로의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상조회, 노인복지관, 여가문화 관련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힘.

□ 보건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2013.2.14.)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4차 회의(2.14.)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 발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하여 간호계 등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개편 배경

- 그동안 간호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에 대한 관리 부실 및 이들의 업무 범위 논란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안 마련이 어려웠음.

- 특히, 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규정한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증폭

-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간협, 간무협, 의학회와 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하여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

- 이를 바탕으로,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가칭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로 개편하면서 교육 수준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 가능한 경로 설계 등의 인력 개편 방향을 제시

○ 개편 방향

- 기본 원칙: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 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

- 간호인력의 구분과 응시자격, 면허 부여, 역할 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함.

○ 주요 내용

- 간호인력 구성 체계

: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단계별 명칭은 추후 확정)

- 간호인력 양성 체계

: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임.

: 전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 운영

-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이행 시기

: 상기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교육과정 운영 시작)

○ 기대 효과

-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 간호인력으로 구성된 간호팀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 현재 개정 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관련 규정을 두고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

-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 과정, 자격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

□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2013.2.12.)**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이 『2013년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
- 사업 개요
 - 장시간 근로 개선, 임금·직무체계 개선, 직무훈련체계 구축 등, 일터 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단의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2. 컨설팅 영역

구분	수행 내용
고성과 근무체계 개선 컨설팅	인적자원 관리제도, 인적자원 육성제도, 근로자 참여제도, 노사 관계 및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HR, 직무훈련체계 구축 컨설팅	인적자원 운용·개발을 위한 기본 체계 수립을 통해 기업의 인사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임금·직무체계 개선	직무 분석 및 평가보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임금·직무체계를 성과 능력 중심으로 전환
소규모 사업장 노사협력 활성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인력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임금 테이블 작성 등을 지원

- 컨설팅 기간: 사업장 당 2~6개월(통합 진단 4주 포함)
- 지원 신청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기업 및 자치단체, 교육청도 지원 가능
- 비용 지원: 전액 정부 지원, 700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사업장 규모 및

컨설팅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단,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까지만 지원함.

□ **노사발전재단, 차별화된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 도입(2013.2.12.)**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전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5개소 중 8개의 희망센터를 노사발전재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음.
- 파산 조치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고용 프로그램 운영
 - 지난 2월 12일, 노사발전재단은 파산 조치되었던 (유)김스코리아 다이캐스트의 노동조합 근로자 90여 명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 희망 프로그램(이하 새 희망 프로그램)」을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구성되었고 2월 중순에 시작해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됨.
 - 프로그램의 1단계는 자기탐색의 시간으로 변화 관리, 인생 설계, 자기관리법,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2~3단계는 '조직발전과 함께하는 나의 역할 찾기'를 주제로 현장 적응 훈련 및 다양한 토론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
- “고용개발촉진지역”의 고용위기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 노사발전재단에서는 또한,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통영시가 지난 1월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통영시의 고용위기 조기 극복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힘.
- 이 밖에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300인 이하 취약사업장 및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고용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

□ 고용노동부, 2013년 「청년창업 인턴제」 개시(2013.1.31.)

○ 올해 사업은 3천 명 규모로 시작하여, 2월 1일부터 청년창업 인턴제에 참가할 청년과 후배 창직·창업자를 양성할 기업 및 개인 모집

○ 사업 개요

- 「청년창업 인턴제」는 청년이 신생 문화콘텐츠·벤처기업 등에서 3개월간 근무하면서 실무 경험 및 창직·창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사업임.

* 참고로, 창직은 없던 직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직무를 세분화·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직업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므로 오늘이 아닌 내일의 직업을 찾는 창직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

- 지원 내용: 사업주에게는 3개월간 약정 임금의 50%(월 한도 80만 원) 지원.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사후 패키지를 6개월간 지원하고, 수료 후 1년 내 창직·창업에 성공하면 창직 지원금 200만 원 제공

- 특히, 올해는 창직·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

- 참여 대상: 인턴 참여 대상은 만 15~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연수 시행자는 창직·창업 유망업종 9인 이하 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등 개인

- 전국 18개의 창직·창업 관련 운영기관이 개인별 창직 지원 계획 수립부터 매칭,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창직·창업을 지원

그림 1. 원스톱 시스템

1단계	개인별 창직 지원 계획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창직 준비상황 점검 등 역량 및 의욕 평가 · A~D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적합한 창직 지원 계획 설정
2단계	기업에서 인턴 수행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직 초기 기업의 사업 운영 과정(자금 확보, 판로 개척, 마케팅, 정부사업 참여)을 경험함으로써 창직 역량 제고 · 컨설팅 지원 등 창직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해 취업·창직 등 진로 방향 설정
3단계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창직 지원 계획 수정 · 정부사업 등 연계 지원 · 창직 지원금 지급
4단계	사후 패키지 지원 (6개월,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자 중 단기간 내 창직 의사가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창직공간 지원 · 창직공간 내 창직매니저 상주 지원 및 팀별 전담 멘토 지정 · 창업자금 등 연계 지원 · 창직 관련 교육 제공 · 그룹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확대 지정, 운영 계획 발표 (2013.1.28.)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소수 정예 민간 창업교육기관인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를 지정·운영할 것임을 발표
-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로 브랜드화, 소수 정예 우수 민간교육기관을 선정(2013년 신규 50개 기관)하여 양질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지원하기로 함.
-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50개 민간 창업교육기관과 2012년에 지정된 50개 기관을 합하여 총 100개 우수 민간 창업교육기관이 금년도 소상공인 전문

창업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수행

○ 주요 개편 내용

- 창업교육 물량을 연간 턴키로 배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교육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
- 교육기관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교과 편성, 현장실습 기간 및 방법 등 성공 창업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 부여
- 실적이 우수한 교육기관에는 차기 년도 교육 물량을 확대 배정하고, 언론 기획 홍보, 기관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 지원
- 또한 기존 80시간의 교육시간을 130시간으로 강화하여 예비창업자의 사후 관리 연계 등 성공 창업을 유도
- 교육과정은 창업 기초, 창업 전문, 현장실습(체험), 1:1 매칭 연계 지원(전국 소상공인 상담사) 등의 단계로 총 130시간 내에서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1:1 매칭 연계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운영 성과 평가

-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에 선정된 민간 창업교육기관의 유효기간은 1년
- 운영 성과가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면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우수 민간교육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창업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폴리텍대학, 2012년에 재직자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훈련 실시(2013.1.10.)**

- 지난해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6,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계, 전기, 공조 냉동, 보일러, 디자인, IT 분야 등 5,370개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12만여 명에게 훈련을 실시

- 재직자 훈련 여건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 360여 곳의 7,861명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이동훈련 실시
 - 특히, 영세중소기업 지원 훈련(85%) 및 뿌리산업 분야 중심의 기술훈련(90%)을 중점적으로 추진
 - 대표적인 사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기업 적응 훈련 57개 과정을 전국 25개 캠퍼스에서 운영하여 1,283명에게 제공
 - 또한 훈련의 질적 제고를 지향하며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고급과정 운영
 - 녹색·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첨단 신기술 분야,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기계, 금형, 신소재, 정보통신, 바이오 등 15개 계열 68종을 개발, 12만여 명 재직자들이 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 등에서 고급과정 교육훈련을 받음.
 - 폴리텍대학은 2013년에도 기업 적응 훈련, 이동훈련과 같은 영세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기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방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 년 만에 전면 개선(2013.2.27.)**
- 개선 배경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적 요소이나 그간 규제 완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부활되는 과정을 거침.
 -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2012년 1년 동안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
 - 개선 방향: 이번의 개선 방안은 안전교육의 산재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를 제고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

-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②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

: 현재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내 교육' 대상으로 규정. 따라서 관리감독자로서의 산재예방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직무교육' 대상으로 변경

③ 근로자 교육(사업 내 교육)의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 제고

: 근로자가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책을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현장부서 단위의 작업 전 5~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 안전교육의 현장성 제고

④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 시 교육 신설

: 서비스업 부문에서 재해자가 급증하고, 단순 반복형 재해의 비중이 커 교육이 절실하였으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음.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 관련 위험 및 재해 예방 방법을 작업 투입 전 1시간 이상 교육

⑤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자율화

: 민간기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법정 강제교육으로서 실시하여 타당성 논란이 있어 왔기에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변경

⑥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프라 강화

: 교육기관을 실습·훈련 중심의 실무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영세성을 탈피하도록 기관간 컨소시엄을 허용.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

보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 향후 계획

- 교육과정 개발, 교육 교재 및 현장학습 모델 마련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 실시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

□ 201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예산은 1조 3,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개인이 부담한 훈련비(전체 훈련비의 30~50%)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훈련-취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재직자 훈련: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훈련비 지원 단가를 평균 5.6% 인상, 기업의 자발적 훈련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훈련: 상대적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확대(1,398억 원에서 1,594억 원)

표 3.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단위: 억 원, %)

구분	2012년(a)	2013년(b)	증감률(a/b)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체	12,759	13,204	3.5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437	3,489	1.5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780	2,007	12.8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1,398	1,594	14.0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319	532	66.9

출처: 기획재정부(2013), 2012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II. 직업능력개발 통계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신청 및 심사 결과

□ 2012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결과 적합률은 52.2%로 나타남.

- 총 9,598개 과정을 심사하여 5,008개 과정이 적합 과정으로 판정됨.
 - 1차 심사에서 4,898개 과정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 가운데 이의신청 후 재심사를 거쳐 110개 과정이 추가로 적합 판정을 받음.
 - 조건부 적합 과정은 비용 조건부 2,093개, 치유 조건부 481개, 비용 및 치유 조건부 1,822개로 구성됨.
- 2010년 이후 심사 신청 과정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적합률은 상승하고 있음.

표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결과

(단위: 개, %)

구분	심사 (A)	판정				부적합 (F)	
		적합 판정 (B=C+D)	적합률				
			적합 (C)	조건부 적합 ¹⁾ (D)	적합률 (B/A)		
2008년	866	529	508	21	61.1	337	
2009년	상반기	9,456	4,280	3,465	815	45.3	5,176
	하반기	26,435	13,668	11,838	1,830	51.7	12,767
2010년	21,827	7,645	5,656	1,989	35.0	14,182	
2011년	14,654	6,810	4,526	2,284	46.5	7,844	
2012년	9,598	5,008	611	4,396	52.2	4,591	

주: 1) 조건부 적합의 경우 2011년까지는 비용 조건부 적합만 해당되었으나, 2012년부터 비용 조건부 적합 외에 부적합 사유 치유 조건부 적합이 포함됨.

2) 일반과정 심사 결과만 제시

3) 이의신청 과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시한 결과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3).

□ 2012년 심사 과정을 직종별로 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2,287개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음식서비스 관련직(1,268개),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1,172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096개)의 순임.
-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직종별로 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917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714개, 음식서비스 관련직 450개 등의 순임.

표 5. 훈련 직종별(KECO 중분류) 적합훈련과정 심사 결과

(단위: 개)

KECO 중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계	21,827	5,656	1,989	14,182	14,654	4,526	2,284	7,844	9,598	611	4,396	4,591
01	14	1	-	13	6	1	-	5	2	-	-	2
02	5,308	1,656	552	3,100	3,881	1,489	553	1,839	2,287	178	739	1,370
03	42	-	-	42	3	-	-	3	66	11	44	11
04	528	35	19	474	285	29	26	230	131	-	35	96
05	6	1	-	5	16	2	6	8	6	-	4	2
06	542	62	40	440	434	150	57	227	412	51	277	84
07	480	61	30	389	453	191	40	222	218	27	107	84
08	4,055	1,313	452	2,290	2,321	645	420	1,256	1,096	88	626	382
09	73	21	6	46	55	17	13	25	60	-	48	12
10	137	35	20	82	166	27	14	125	107	4	39	64
11	23	-	1	22	16	3	-	13	7	-	-	7
12	3,108	343	94	2,671	1,677	155	183	1,339	1,172	22	332	818
13	2,583	788	255	1,540	1,795	478	248	1,069	1,268	10	440	818
14	260	72	23	165	251	62	42	147	274	8	164	102
15	277	98	59	120	215	116	60	39	339	56	253	30
16	146	54	20	72	149	67	28	54	147	1	140	6
17	6	-	1	5	15	4	4	7	13	2	9	2
18	556	164	51	341	437	90	187	160	398	11	202	185
19	484	202	37	245	328	188	48	92	337	44	232	61
20	1,411	382	206	823	848	417	158	273	394	51	232	111
21	999	220	58	721	650	195	102	353	450	21	214	215
22	676	111	56	509	554	156	78	320	344	21	213	110
23	113	37	9	67	99	44	17	38	70	5	46	19

KECO 중분류: 01. 관리직,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3. 금융, 보험 관련직,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05.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06. 보건 및 의료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 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3).

□ 2012년 훈련 직종별 적합률은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이 95.9%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기계 관련직(91.2%), 화학 관련직(84.6%), 금융·보험 관련직(83.3%) 등의 순임.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은 심사 과정 중 23.8%, 적합 판정 과정 중 1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적합률은 40.1%로 평균 적합률(52.2%)보다 낮음.

표 6. 훈련 직종별(KECO 중분류) 적합훈련과정 비중 및 적합률

(단위: %)

KECO 중분류	전체 ¹⁾			적합 판정 ²⁾			적합률 ³⁾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0	46.5	52.2
01	0.1	0.0	0.0	0.0	0.0	0.0	7.1	16.7	0.0
02	24.3	26.5	23.8	28.9	30.0	18.3	41.6	52.6	40.1
03	0.2	0.0	0.7	0.0	0.0	1.1	0.0	0.0	83.3
04	2.4	1.9	1.4	0.7	0.8	0.7	10.2	19.3	26.7
05	0.0	0.1	0.1	0.0	0.1	0.1	16.7	50.0	66.7
06	2.5	3.0	4.3	1.3	3.0	6.6	18.8	47.7	79.6
07	2.2	3.1	2.3	1.2	3.4	2.7	19.0	51.0	61.5
08	18.6	15.8	11.4	23.1	15.6	14.3	43.5	45.9	65.1
09	0.3	0.4	0.6	0.4	0.4	1.0	37.0	54.5	80.0
10	0.6	1.1	1.1	0.7	0.6	0.9	40.1	24.7	40.2
11	0.1	0.1	0.1	0.0	0.0	0.0	4.3	18.8	0.0
12	14.2	11.4	12.2	5.7	5.0	7.1	14.1	20.2	30.2
13	11.8	12.2	13.2	13.6	10.7	9.0	40.4	40.4	35.5
14	1.2	1.7	2.9	1.2	1.5	3.4	36.5	41.4	62.8
15	1.3	1.5	3.5	2.1	2.6	6.2	56.7	81.9	91.2
16	0.7	1.0	1.5	1.0	1.4	2.8	50.7	63.8	95.9
17	0.0	0.1	0.1	0.0	0.1	0.2	16.7	53.3	84.6
18	2.5	3.0	4.1	2.8	4.1	4.3	38.7	63.4	53.5
19	2.2	2.2	3.5	3.1	3.5	5.5	49.4	72.0	81.9

〈표 계속〉

KECO 중분류	전체 ¹⁾			적합 판정 ²⁾			적합률 ³⁾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	6.5	5.8	4.1	7.7	8.4	5.7	41.7	67.8	71.8
21	4.6	4.4	4.7	3.6	4.4	4.7	27.8	45.7	52.2
22	3.1	3.8	3.6	2.2	3.4	4.7	24.7	42.2	68.0
23	0.5	0.7	0.7	0.6	0.9	1.0	40.7	61.6	72.9

주: 1) 전체: 심사 과정 전체의 직종별 비중

2) 적합 판정: 적합 판정(적합+조건부 적합)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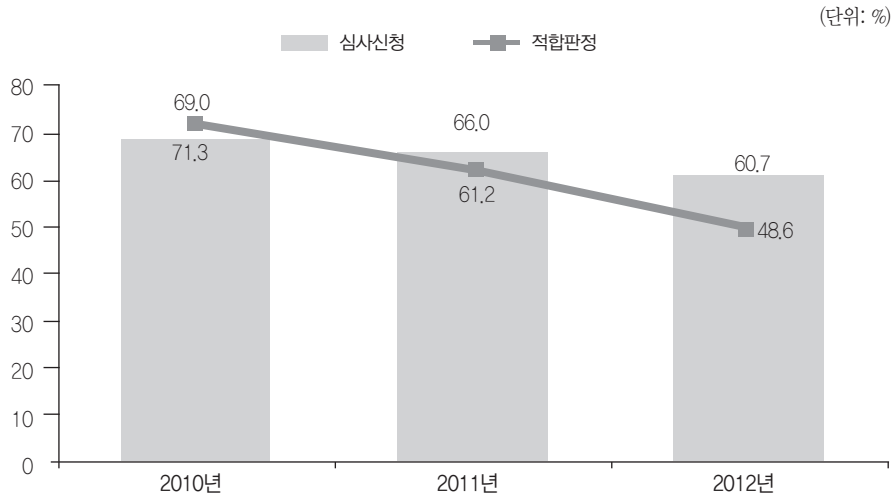
3) 적합률: 해당 직종별 적합률이며, 전체 심사 과정 가운데 적합+조건부 적합 과정의 비중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3).

□ 비중이 높은 4대 직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등 4대 직종이 전체 심사 신청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69.0%에서 2012년 60.7%로 감소
-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1.3%(2010년)에서 48.6%(2012년)로 감소

그림 2. 4대 훈련 직종의 심사 신청 및 적합 판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4대 훈련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3).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심사 과정 2,361개(24.6%), 적합 판정 과정 1,337개(26.7%)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경기도가 심사 과정 1,563개(16.3%), 적합 판정 과정 833개 (16.6%)로 많음.

○ 적합률은 울산이 60.1%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28.1%로 가장 낮음.

표 7. 지역별 적합훈련과정 심사 결과

(단위: 개)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전체	적합	조건부	부적합
계	21,827	5,656	1,989	14,182	14,654	4,526	2,284	7,844	9,598	611	4,396	4,591
서울	5,874	1,337	606	3,931	3,996	1,185	794	2,017	2,361	208	1,129	1,024
부산	1,896	495	236	1,165	1,303	441	174	688	844	44	424	376
대구	1,903	658	136	1,109	1,227	406	155	666	832	59	377	396
인천	890	224	52	614	672	244	132	296	454	53	176	225
광주	1,607	452	124	1,031	1,088	271	153	664	749	56	287	406
대전	867	279	89	499	586	173	96	317	473	28	209	236
울산	396	99	56	241	281	75	29	177	178	9	98	71
경기	3,664	839	299	2,526	2,401	773	398	1,230	1,563	52	781	730
강원	324	68	25	231	225	72	22	131	171	4	75	92
충북	518	136	43	339	302	91	33	178	232	11	101	120
충남	545	136	48	361	323	104	40	179	184	19	71	94
전북	970	289	79	602	543	172	64	307	446	10	205	231
전남	566	150	62	354	355	115	32	208	234	14	88	132
경북	670	197	40	433	367	97	58	212	234	10	95	129
경남	1,137	297	94	746	799	265	87	447	554	32	257	265
제주	-	-	-	-	186	42	17	127	89	2	23	64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3).

표 8. 지역별 적합훈련과정 비중 및 적합률

(단위: %)

지역	전체 ¹⁾			적합 판정 ²⁾			적합률 ³⁾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0	46.5	52.2
서울	26.9	27.3	24.6	25.4	29.1	26.7	33.1	49.5	56.6
부산	8.7	8.9	8.8	9.6	9.0	9.3	38.6	47.2	55.5
대구	8.7	8.4	8.7	10.4	8.2	8.7	41.7	45.7	52.4
인천	4.1	4.6	4.7	3.6	5.5	4.6	31.0	56.0	50.4
광주	7.4	7.4	7.8	7.5	6.2	6.9	35.8	39.0	45.8
대전	4.0	4.0	4.9	4.8	4.0	4.7	42.4	45.9	50.1
울산	1.8	1.9	1.9	2.0	1.5	2.1	39.1	37.0	60.1
경기	16.8	16.4	16.3	14.9	17.2	16.6	31.1	48.8	53.3
강원	1.5	1.5	1.8	1.2	1.4	1.6	28.7	41.8	46.2
충북	2.4	2.1	2.4	2.3	1.8	2.2	34.6	41.1	48.3
충남	2.5	2.2	1.9	2.4	2.1	1.8	33.8	44.6	48.9
전북	4.4	3.7	4.6	4.8	3.5	4.3	37.9	43.5	48.2
전남	2.6	2.4	2.4	2.8	2.2	2.0	37.5	41.4	43.6
경북	3.1	2.5	2.4	3.1	2.3	2.1	35.4	42.2	44.9
경남	5.2	5.5	5.8	5.1	5.2	5.8	34.4	44.1	52.2
제주	-	1.3	0.9	-	0.9	0.5	-	31.7	28.1

주: 1) 전체: 심사 과정 전체의 지역별 비중

2) 적합 판정: 적합 판정(적합+조건부 적합)을 받은 훈련과정의 지역별 비중

3) 적합률: 해당 지역별 적합률이며, 전체 심사 과정 가운데 적합+조건부 적합 과정의 비중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내부 자료(2013).

◆ 고용보험 동향: 연간(2006~2011년)

□ 2011년 12월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50만 9천 개소로 전년 대비 7.1% 증가

○ 2011년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87만 4천 개소, 고용보험을 탈퇴한 사업장은 80만 4천 개소임.

표 9.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변동 현황

(단위: 개소,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말기준	1,176,462	1,288,138	1,424,330	1,385,298	1,408,061	1,508,669
(전년 대비 증감률)	(2.4)	(9.5)	(10.6)	(-2.7)	(1.6)	(7.1)
성립	689,734	778,967	874,199	826,907	811,231	874,443
소멸	659,593	652,456	757,317	880,930	807,487	803,536
성립-소멸	30,141	126,511	116,882	-54,023	3,744	70,907

주: 고용보험제도 시행 초기(1995.7.1)에는 당연 적용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이후 10인 이상(1998.1.1), 5인 이상(1998.3.1), 1인 이상(1998.10.1)으로 확대·적용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 2011년 12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67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

○ 2011년 한 해 동안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594만 7천명, 고용보험 상실자는 539만 2천명임.

표 10. 고용보험 피보험자(순수) 변동 현황

(단위: 명,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말기준	8,436,408	8,941,639	9,271,701	9,653,678	10,131,058	10,675,437
(전년 대비 증감률)	(5.9)	(6.0)	(3.7)	(4.1)	(4.9)	(5.4)
취득자	4,397,632	4,609,512	4,802,266	5,177,050	5,601,393	5,946,960
상실자	3,860,139	4,025,285	4,409,950	4,722,915	5,112,336	5,392,169
기간내 순증감	537,493	584,227	392,316	454,135	489,057	554,791

주: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 수는 제외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 전체 피보험자 가운데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5.3%에서 2011년 61.5%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자는 증가 추세를 보임.

표 11. 성별 피보험자(순수) 비중 추이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 대비 증감률)
남자	65.3	64.6	64.0	63.0	62.3	61.5	4.1
여자	34.7	35.4	36.0	37.0	37.7	38.5	7.5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 2011년 재직자 훈련 지원 현황을 보면 336만 3천 명에게 5,810억 6천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지원 건수(인원)는 21.2%, 지원 금액은 8.9% 감소함.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3백만 5천 건, 2,848억 9천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각각 20.2%, 17.8% 감소
 - 유급휴가훈련의 지원 실적은 1만 1천 건,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5%, 5.1% 증가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16만 3천 건에 286억 4천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각각 38.0%, 42.3% 감소
 -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12만 9천 건에 311억 4천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각각 24.1%, 31.1% 감소
- 2011년 실업자 훈련은 30만 5천 명에게 3,506억 7천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지원 인원은 36.1%, 지원 금액은 4.8% 증가함.
 - 전직실업자훈련에 참가한 실업자는 27만 9,733명으로 전년 대비 35.3% 증가했으며, 지원 금액은 2,002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 감소

표 1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건, 명,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 대비 증감률	
사업장	전체	전체	77,314	188,732	107,828	261,363	238,425	211,490	-11.3	
		직업능력개발훈련	76,850 (99.4)	187,663 (99.4)	106,123 (98.4)	257,190 (98.4)	234,224 (98.2)	207,738 (98.2)	-11.3	
		유급휴가훈련	400 (0.5)	990 (0.5)	1,612 (1.5)	4,065 (1.6)	4,086 (1.7)	3,607 (1.7)	-11.7	
		직업훈련시설장비 구입 대부 및 지원	7 0.0	9 0.0	10 0.0	12 0.0	13 0.0	11 0.0	-15.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57 (0.1)	70 0.0	83 (0.1)	96 0.0	102 0.0	134 (0.1)	31.4	
	재직자	전체	전체	2,961,131	3,631,033	4,032,156	4,978,844	4,268,664	3,362,625	-21.2
			직업능력개발훈련	2,752,052 (92.9)	3,300,197 (90.9)	3,654,216 (90.6)	4,503,595 (90.5)	3,764,139 (88.2)	3,004,691 (89.4)	-20.2
			유급휴가훈련	5,941 (0.2)	7,133 (0.2)	9,324 (0.2)	13,294 (0.3)	10,873 (0.3)	11,257 (0.3)	3.5
		지원 건수, 인원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	155,620 (5.3)	269,045 (7.4)	287,827 (7.1)	280,667 (5.6)	262,689 (6.2)	162,992 (4.8)	-38.0
			재직자내일배움 카드제 ²⁾		7,638 (0.2)	29,337 (0.7)	80,691 (1.6)	170,609 (4.0)	129,451 (3.8)	-24.1
중소기업핵심 직무 능력향상지원			19,176 (0.6)	21,795 (0.6)	25,945 (0.6)	71,173 (1.4)	34,960 (0.8)	32,727 (1.0)	-6.4	
근로자학자금대부	28,342 (1.0)	25,225 (0.7)	25,507 (0.6)	29,424 (0.6)	25,394 (0.6)	21,507 (0.6)	-15.3			
실업자	지원 인원	전체	75,199	92,314	92,691	108,624	224,048	304,932	36.1	
		전직실업자훈련 ³⁾	53,642 (71.3)	65,242 (70.7)	70,565 (76.1)	88,094 (81.1)	206,739 (92.3)	279,733 (91.7)	35.3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21,557 (28.7)	27,072 (29.3)	22,126 (23.9)	20,530 (18.9)	17,309 (7.7)	25,199 (8.3)	45.6	

주: 1) 2011년 9월 이후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됨.

2) 2007년부터 사업 시행

3)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 여성가장훈련 포함, 2010년은 내일배움카드제 포함 실적, 2011년은 내일배움카드제 실적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표 13.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 대비 증감률
재직자	전체	485,157	587,856	640,469	746,861	638,095	581,063	-8.9
	직업능력개발훈련	296,864 (61.2)	340,924 (58.0)	382,581 (59.7)	432,942 (58.0)	346,763 (54.3)	284,890 (49.0)	-17.8
	유급휴가훈련	10,419 (2.1)	13,823 (2.4)	15,071 (2.4)	15,320 (2.1)	10,951 (1.7)	11,505 (2.0)	5.1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28,851 (5.9)	52,782 (9.0)	53,508 (8.4)	56,033 (7.5)	49,614 (7.8)	28,635 (4.9)	-42.3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²⁾		1,891 (0.3)	7,373 (1.2)	20,684 (2.8)	45,226 (7.1)	31,144 (5.4)	-31.1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	14,381 (3.0)	16,606 (2.8)	15,586 (2.4)	34,686 (4.6)	14,393 (2.3)	14,242 (2.5)	-1.0
	근로자학자금대부	81,642 (16.8)	79,851 (13.6)	87,755 (13.7)	99,076 (13.3)	90,769 (14.2)	79,786 (13.7)	-12.1
	직업훈련시설장비구입 대부 및 지원	8,000 (1.6)	7,600 (1.3)	8,360 (1.3)	9,775 (1.3)	6,688 (1.0)	8,000 (1.4)	19.6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45,000 (9.3)	74,379 (12.7)	70,235 (11.0)	78,345 (10.5)	73,691 (11.5)	122,861 (21.1)	66.7
실업자	전체	263,100	301,914	286,386	360,059	334,710	350,669	4.8
	전직실업자훈련 ³⁾	128,486 (48.8)	152,604 (50.5)	160,899 (56.2)	249,727 (69.4)	234,945 (70.2)	200,210 (57.1)	-14.8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34,614 (51.2)	149,310 (49.5)	125,487 (43.8)	110,332 (30.6)	99,765 (29.8)	150,459 (42.9)	50.8

주: 1) 2011년 9월 이후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됨.

2) 2007년부터 사업 시행

3)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 여성가장훈련 포함. 2010년은 내일배움카드제 포함 실적, 2011년은 내일배움카드제 실적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 고용보험 동향: 2013년 1월

□ 2013년 1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55만 4천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

○ 피보험자는 1,106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함.

표 14.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

	2012.1	2012.12		2013.1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 사업장	1,448,916	1,610,713	1,553,958	105,042	7.2	-56,755	-3.5
○ 피보험자(순수)	10,601,936	11,152,354	11,063,734	461,798	4.4	-88,620	-0.8
남 자	6,546,500	6,784,700	6,750,418	203,918	3.1	-34,282	-0.5
여 자	4,055,436	4,367,654	4,313,316	257,880	6.4	-54,338	-1.2
취득자	520,189	387,164	571,514	51,325	9.9	184,350	47.6
상실자	591,760	407,024	659,497	67,737	11.4	252,473	62.0

주: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건수는 9만 3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전년 동월 대비 66.7%, 유급휴가훈련이 147.6%,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2.5%,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가 19.1% 증가함.

표 15.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건수 현황

(단위: 건, %)

	2012.1	2012.12	2013.1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76,209	95,239	92,556	21.5	-2.8
직업능력개발훈련	12,119	22,481	20,200	66.7	-10.1
유급휴가훈련	124	471	307	147.6	-34.8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13,349	14,801	13,678	2.5	-7.6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3,113	1,788	-42.6	-2.9
	자영업자		6	-	-
	실업자	47,504	55,645	56,577	19.1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11년 9월 이후 수감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금액은 46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9%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140.4%), 유급휴가훈련(204.8%),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26.1%),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35.7%)에 대한 지원금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표 16.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2012.1	2012.12	2013.1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27,533	64,889	46,784	69.9	-27.9	
직업능력개발훈련	9,243	37,353	22,221	140.4	-40.5	
유급휴가훈련	265	1,251	807	204.8	-35.5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2,288	3,091	2,884	26.1	-6.7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1,744	1,708	1,882	8.0	10.2
	자영업자			4	-	-
	실업자	13,994	21,486	18,985	35.7	-11.6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기관의 통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11년 9월 이후 수감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작성: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